

# ‘홍명보호’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향해 순항할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늘 서울서 팔레스타인과 1차전 홍, 10년 3개월만 A매치 지휘봉 손흥민 A매치 50호골 도전 주목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왼쪽) 감독과 주장 손흥민이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10년 3개월 만에 재출항하는 홍명보호가 닦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의 첫 단추를 잘 꿰겠다는 각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FIFA(국제 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번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 오만,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묶였다. 조 1~2위 팀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4위 팀은 4차 예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2위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명보호는 호주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북한 등 난적

을 피하며 비교적 수월한 대진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을 1강으로 이라크와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2중-3약 또는 3중-2약의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꺼냈다. 코칭스태프 역시 박건하 코치를 제외하고 주앙 아로소 수석 코치와 김동진 코치, 김진규 코치, 티아고 마이아 코치, 양영민 골키퍼 코치 등 모두 새로운 얼굴로 채웠다.

홍 감독은 지난 2일 대표팀 소집 직후 인터뷰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다”면서도 “1990 이탈리아 월드컵과 2002 한일 월드컵에 나갈 때 마음이 차이 났던 것처럼 지금도 10년 전과는 다른 상태”라고 밝혔다.

또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 한 경기 한 경기가 결과적으로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전은 나보다는 한국에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승리에 대한 중요성이 큰 만큼 소집 명단 역시 최정예로 채웠다.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을 필두로 황인범(페예노르트 로테르담)과 이재성(1. FSV 마인츠 05),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FC), 김민재(FC 바이에른 뮌헨) 등을 모두 소집했고, 안락한 호흡을 위해 훈련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3차 예선 첫 상대가 된 팔레스타인의 무기는 응집력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가 큰 만큼 이를 결

과로 보담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귀화 선수들의 존재감 역시 위협적이다.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 출신의 웨삼 아부 알리(알아흘리 SC)를 비롯해 오마르 파라이(AIK 포드볼), 무스타파 지단(로센보르그 BK), 아타 자베르(네프치 PFK)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주장인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전망이다. A매치 통산 127경기에서 4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은 팔레스타인전에 출전해 멀티골을 터트릴 경우 한국 선수로 A매치 최다 출전 단독 4위와 함께 최다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선다.

김진수와 김태환(이상 전북현대)이 낙마한 상황에서 측면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설영우(FK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사실상 유일한 경험자인 가운데 이명재(울산HDFC)와 최우진(인천유나이티드), 황문기(강원FC), 황재원(대구FC) 등이 새로 도전장을 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이범호 “김도영 교체, 별일 없어야 한다는 게 제일 먼저”

지난 3일 LG전서 팔꿈치 부상 사구 맞은 직후 지정 병원 이송

“별일 없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였습니다.”

경기 도중 김도영을 부상으로 교체했던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팔꿈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우승 도전을 순조롭게 이어갈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김도영의 부상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앞서 김도영은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LG트윈스와 시즌 16차전 5회말 2사 2루에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의 3구째 150km 직구에 왼쪽 팔꿈치를 맞은 뒤 대주자 홍중표와 교체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진 결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 감독은 “팔꿈치 보호대를 좀 더 두꺼운 것으로 구해줘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다른 선수들에 비해 작은 것을 찬다. 언젠가 사구를 맞으면 아플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투수들이 강타자들을 상대로 몸쪽 공을 던져야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도영은 사구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승부를 펼치다가 몸에 많은 공을 맞는 대표적인 예가 SSG 랜더스의 최정이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가운데) 감독이 지난 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에서 7-5 역전승을 거둔 뒤 김도영과 축하하고 있다. 뉴스스

이 감독은 “이제 팔꿈치 보호대를 큰 것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공에 맞을 일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다”며 “잘하는 선수들은 몸쪽 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를 잘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빈볼 논란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감정적인 상황이라는 투수와 타자가 정상적으로 승부를 펼치던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

이 감독은 “LG도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도영이를 내보내면 (최)형우나

(나)성범이랑 상대해야 했다. 도영이한테 홈런을 맞은 것도 아니고 빈볼을 던질 이유가 없었다”며 “몸쪽 던지다 빠진 것이고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도 전혀 없다. 도영이도 문제없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영에 이어 수비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교체됐던 최원준은 우선 휴식을 취한다. 이 감독은 “(최)원준이는 오늘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발목을 하루 이틀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트레이닝 파트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규빈 기자

## KIA, 구단 최다 관중 신기록 경신

61경기에 102만6235명 입장



올 시즌 KBO 리그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흥행에서도 질풍나도를 달리고 있다.

연일 구름 관중 몰이에 성공하며 챔피언스 필드 개장 후 최다 만원 관중과 최다 경기 연속 만원 관중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KIA는 지난 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6차전에 1만 3089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 시즌 누적 관중 102만6235명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KIA는 지난 2017년 세웠던 102만4830명(70경기 기준)의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올 시즌 61경기 만에 넘어섰고, 안방에서 12경기가 남아 있는 만큼 120만 관중 달성에도 도전할 전망이다.

KIA는 올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질주하며 흥행몰이를 시작했다. 3월 26일 롯데전부터 4월 20일 NC전까지 15만2414명을 동원하며 개막 이후 10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고, 5월 25일 두산전에서는 11번째 전석 매진을 달성하며 챔피언스 필드 개장 후 최다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이어 5월 24일 두산전부터 5월 31일 KT

전까지 네 경기 연속 전석 매진으로 챔피언스 필드 개장 후 최다 경기 연속 만원 관중 타이 기록을 이뤘고, 이 기록을 6월 2일 KT전까지 이어가며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경기 연속 만원 관중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흥행몰이에 성공한 KIA는 지난달 28일 SSG전에서는 올 시즌 누적 관중 100만 2155명을 달성하며 사상 두 번째 100만 관중 고지를 밟았다. 이후 두 경기 만에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까지 새로 쓰게 됐다.

KIA는 이번 주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만원 관중 기록 경신에도 도전한다. 현재 21번의 홈 만원 관중을 달성하며 타이 기록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 경기만 더 전석 매진을 이룬다면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다.

이범호 감독도 팬들의 성원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 감독은 지난 3일 LG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직후 “구단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 남은 경기에서도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A는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 경신을 기념해 다양한 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6~8일 키움전에서는 홈경기 입장 관중들을 대상으로 보물찾기 이벤트를 열어 스카이박스과 챔피언스 티켓을 선물할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 광주시체육회 남자스쿼시, 전국실업선수권 단체전 우승

2019년 전국체전 이후 5년 만

광주시체육회 남자 스쿼시팀이 2024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우창욱(35)·고영조(28)·오성학(27)으로 꾸려진 광주시체육회 남자 스

쿼시팀은 지난달 26~29일 경북 김천 스키시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충북체육회를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시체육회 남자 스쿼시팀은 지난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우승 이후 5년 만에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광주시체육회는 16강에서 세종시스쿼시연맹을 3-0으로 완파하고 8강에서 경북체육회를 2-1로 꺾은 뒤 4강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남체육회를 2-1로 이기며 결승에 선착했다.

광주시체육회는 결승에서 지난해 전국

체전과 전국실업스쿼시대회 우승팀인 충북체육회를 만나 1경기에 나선 우창욱이 상대 박승민에 1-3으로 져 기선을 뺏겼다.

하지만 2경기에서 고영조가 국가대표인 상대 이민우와 5세트 접전 끝에 3-2로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진 3경기에서 오성학이 상대 이세현을 3-0으로 물리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박한솔 광주시체육회 스쿼시감독은 “선

수의 군문제와 코로나 그리고 부상으로 5년동안 남자선수스쿼시팀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10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치러진 실업연맹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큰 의미가 있는 거 같다”며 “광주시체육회 효자종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물심양면 지원해준 광주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